

with KRTA

방사협보

VOL. 405

MARCH
2026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제65차 정기총회’ 성료

20

국제학회 영어 구두발표의
전략과 실제

46

“초음파사”란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60



대한방사선사협회

with KRTA

방사협보

MARCH 2026 VOL.405



표지 이야기

제53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및
제65차 정기총회

발행일 2026년 3월 22일(통권 405호)
발행인 박중창(대한방사선사협회장)
편집위원장 박성모(건국대학교병원)
미디어혁신이사 박호성(아주대학교병원)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전화 02-576-6524
팩스 02-576-6526
이메일 krta@krta.or.kr
홈페이지 www.krta.or.kr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편집/디자인 상상크리에이티브
인쇄 동신CNP

Contents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홍보동영상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6 발로 뛰는 협회
- 10 제26대 회장님 인사말
- 11 제26대 집행부 비전
- 12 제26대 부회장단 소개
- 13 제26대 집행부 소개
- 19 중앙회 소식
- 28 시·도회 소식
- 39 전문학회 소식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60 ISSUE
“초음파사”란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6 ISSUE
국제학회 영어 구두발표의 전략과 실제
- 52 REVIEW
X-ray 장비가 생산되는 뜨거운 현장 속으로
- 56 ESSAY
통찰의 지도로 그리는 방사선사의 건강 소통

We are RT's

- 66 2026년 연간 교육 일정 안내
- 68 Webtoon
숨 참으세요
- 71 퀴즈 이벤트
독자퀴즈

AUTO POSITIONING SYSTEM GXR-SD

촬영 부위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전자동으로 촬영조건이 세팅되는 최고급 사양을 갖춘 디지털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장비입니다.



검진차량용 Mobile DR Van

3kVA 단상 전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워크플로우와 빠른 검사 처리 속도를 제공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MOTORIZED MOBILE SYSTEM TOPAZ

정밀 컬럼과 고성능을 갖춘 컴팩트한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로, 태블릿 기반 Smart Control을 통해 원격 제어 및 실시간 영상·음성 스트리밍, 다국어 음성 가이드를 지원합니다.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발로 뛰는 협회	06
제26대 회장님 인사말	10
제26대 집행부 비전	11
제26대 부회장단 소개	12
제26대 집행부 소개	13
중앙회 소식	19
시·도회 소식	28
서울특별시회	
부산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인천광역시회	
경상북도회	
전문학회 소식	39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2026 January

01.02.

- 2025년 정기감사
- 2026년 시무식

01.03.

- 2025년 정기감사
- 2026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워크숍

01.04.

- 2025년 정기감사
- 2026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워크숍
- 2026년 예산 관련 재무 업무활동

01.05.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 민주당 의원 미팅
- 2026년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의



01.07.

- 재무부 업무활동

01.08.

-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 2026년 제1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 회의
- 대한간호협회 신년 미팅

01.09.

-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2025년 정기감사

01.11.

- 2025년 정기감사

01.12.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제1차 이사회 회의

01.16.

- 업체 미팅
- 2025년 정기감사



01.17.

- 2025년 정기감사
- 제237차 정기이사회
- 제1차 인사위원회

01.18.

- 2025년 정기감사

01.19.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정기 감사

01.22.

-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창립 50주년 기념식

01.23.

- 대한초음파학회 전임회장 미팅

01.24.

- 제64차 강원특별자치도회 정기의원총회
- 무료 법률상담



01.26.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회의

01.27.

- 대구광역시회 정기총회
- 제26대 대의원 선거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 개선방안 관련 실무자 회의

01.29.

-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제20차 대의원 총회

01.30.

- 2025년 정기감사 총평 관련 업무활동

01.31.

- 제45차 인천광역시회 정기총회



2026 February



- 02.02.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활동
- 02.03.
 - 서영교 국회의원 복콘서트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단체장 미팅
- 02.04.
 -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의
- 02.05.
 - 제2차 인사위원회의
- 02.06.
 - 제브이사회의
 - 2026년 제1차 사무국 업무회의

- 02.07.
 - 국회의원 이수진 의정보고회
 - 국회의원 남인순 의정보고회
 - 국회의원 안태준 의정보고회
- 02.09.
 - 제2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정기회의
- 02.10.
 - 2026년도 대한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동계연수 및 정기총회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 복콘서트
- 02.11.
 - 2026년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02.12.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월 예결산 소위원회의
- 02.14.
 - 무료 법률상담
- 02.19.
 -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준비
- 02.20.
 - 2026년 제1차 임원추천위원회
 -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02.23.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정기이사회의

- 02.25.
 - 대한간호협회 제95회 정기대의원총회
 - 대의원총회 의장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활동
- 02.26.
 - 김미애 국회의원 미팅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61회 정기총회
- 02.27.
 - 제1차 중앙관리위원회
- 02.28.
 - 제65차 정기총회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8일 개최된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6대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박종창입니다.

6만 2천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경청하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신뢰로 보답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격려는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고,
때로는 아픈 지적과 엄중한 조언 또한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단단한 협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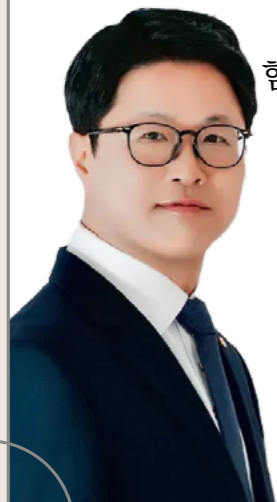
갈등보다 화합을,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하며
모든 회원이 존중받는 협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회원의 삶을 바꾸는 협회, 참여할 이유가 분명한 협회"

회원 여러분과 책임을 나누고,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동행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제26대 박종창 회장



INSTITUTIONAL IDENTITY

제26대 비전 체계도

협회의 존재 이유와 미래가치를 정밀하게 정렬했습니다.
회원주권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향한 변함없는 이정표입니다.



STRATEGIC ACTION PILLARS

PRIDE 5대 핵심가치

제26대 집행부의 모든 역량은 이 다섯가지 기둥에 집중됩니다.



“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



부회장 김진익 서울대학교병원

35년간 방사선 현장을 지켜오며, 방사선사의 역할과 책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으로서 회원 여러분과 함께 협회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협회가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과 함께 성장하며 방사선사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겠습니다.



부회장 유세종 건양대학교병원

회원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회원이 "열린 제도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권리를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회원 한 분 한 분의 경험과 가치가 존중되는 협회를 그려봅니다.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화롭게 발전하며, 실질적인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협회를 위해 차분히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회장 김동환 삼성서울병원

협회 부회장으로서 전국 방사선사 회원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열린 소통의 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협회의 존재 이유가 회원에게 있음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문턱은 낮추고, 회원 누구와도 가감 없이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또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회원들의 어려운 고충을 함께 나누고, 방사선사의 위상을 함께 높여갈 수 있도록 쓸모 있게 쓰이는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시대의 방사선사가 기대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회장 문철홍 오병원

선거 과정에서 방사선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Brand Power Radiologist 3 Book' 전략을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행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회원 권익이 최우선인 협회, 정보가 공정하게 공유되는 협회, 방사선사가 자부심을 지키며 오래 일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의 삶이 좋아질 때 협회는 진정으로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연대의 시간입니다. 모든 회원과 함께, 더 강한 대한방사선사협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회장 박성모 건국대학교병원

저는 협회의 중심을 잡는 조력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여 자부심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앙회와 시도회 및 전문학회, 세대를 잇는 가교로서 균형 있는 소통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회원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협회의 품격 있는 도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욱 신뢰받는 대한방사선사 협회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균형의 추'가 되어 헌신하겠습니다.

1. 총무부



총무이사
신준봉 강원대학교병원

총무부장
최효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기획부장
안균홍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전산관리부장
김현영 한국수력원자력

총무부는 협회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부서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회원 중심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총무부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회원과 대의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 시스템 도입과 위원회 참여 제도를 추진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위원회와 정례 설문 및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총무부는 협회 행정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편리하게 협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AI 기반 챗봇 도입, 행정 시스템 정비, 긴급 민원 대응 핫라인 구축 등을 추진하여 회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가 단순한 행정 조직을 넘어 회원 의견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의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하는 성과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 실행 과정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포상 제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위한 표창 제도를 마련해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겠습니다.

총무부는 단순한 행정 부서가 아니라 회원과 협회를 연결하는 소통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미디어혁신부와 협력해 정책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과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리포터즈(K-RPG)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부는 회원 의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협회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회의 모든 정책은 6만여 방사선사 회원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협회 발전의 가장 큰 힘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재무부



재무이사

김 병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재무부장

김 우진 삼성메디슨

재무부장

오 중인 서울아산병원

재무부는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협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통해 각종 사업과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연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회계 운영, 회원 회비 관리, 재정 보고 및 감사 대응 등 협회 재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각 부서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무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무부는 책임 있는 재정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협회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회원을 위한 다양한 협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학술부



학술이사

김 대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학술부장

송 태규 이화여자대학교
이과대학부속 서울병원

"데이터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무 학술로 회원의 미래를 여는 학술부"

제26대 대한방사선사협회 학술부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과 '회원의 실무적 학술 역량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힘차게 출발합니다.

관행적인 학술 활동과 임상 기술 공유의 틀을 넘어 전문성을 수치화한 정책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협회의 정책적 목소리에 실질적인 힘을 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 및 전문방사선사 법제화를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적 호소 대신 검증된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가 국민 안전으로 직결되는 학술적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학술은 결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 작성이 낯선 회원님들을 위해 실무형 통계 및 논문작성 교육을 상설화하고, 누구나 연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문학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술 및 정책 연구의 포상 확대를 통해 연구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강력한 데이터가 되는 그날까지, 학술부가 늘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4. 교육부



교육이사

강 성진 안산대학교

교육부장

안 희정 경희대학교병원

교육부장

최 민혁 덴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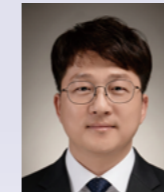
"급변하는 의료 환경, 방사선사의 미래를 여는 전문교육"

급변하는 디지털 의료 환경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은 직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며, 모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은 우리 직역의 전문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교육부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관점의 교육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방사선사의 직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회원부터 중견 회원까지 다양한 수준의 지식과 역량에 맞춘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넘어,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방사선사 직종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선순환 교육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5. 법제부



법제이사

이 진회 건양대학교병원

법제부장

송 정현 건양대학교병원

법제부장

송 대영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대한방사선사협회의 발전은 회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직역의 전문성이 올바르게 인정받을 때 더욱 굳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부는 방사선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협회의 정책과 활동이 법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직무와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책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 내부 규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협회의 운영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협회의 미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법제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6. 미디어혁신부



미디어혁신이사

박 호 성 아주대학교병원

미디어혁신부장

김 민 준 아주대학교병원

미디어혁신부장

최 지 응 아주대학교병원

“회원과 협회를 더 가깝게, 소통은 더 빠르게, 대한방사선사의 가치는 더 넓게. 미디어혁신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새로운 도약은 회원과 협회가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혁신부는 협회의 정책과 활동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회원들의 목소리가 협회에 전달될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영상,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협회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방사선사의 가치와 전문성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방송, 언론, 온라인 미디어와 같은 대중매체와 SNS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협회의 모습을 알리고,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방사선사의 역할과 가치를 널리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회의 건전하고 전문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산시키고, 대한방사선사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미디어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협회와 회원, 그리고 국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혁신부는 열린 소통과 투명한 정보 전달을 통해 협회가 더욱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협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방사선사 협회.

그 중심에 미디어혁신부가 있겠습니다.

7. 복지·권익부



복지·권익이사

김 동 진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복지부장

이 주 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복지부장

서 재 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회원의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복지·권익 향상을 통해 협회의 존재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권익부는 우리 회원님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의료·여가·금융 등 실생활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 여러분의 고충이 ‘정책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발 벗고 뛰겠습니다.

셋째, 부당한 대우로부터 회원님들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가치’를 당연히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이 곧 협회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고,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당연히 전문가로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사업·보험부



사업·보험이사

이 준 건국대학교병원

사업부장

김 진 수 용인세브란스병원

보험부장

최 유 진 이화여자대학교부속 목동병원

사업보험부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사선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방사선사가 수행하는 검사와 업무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 실명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발전을 위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협회가 보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협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기관과 유관단체, 그리고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방사선사의 역할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방사선사의 전문적인 역할이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의 질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보험부는 방사선사의 권익과 전문성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제도, 재정의 세 가지 기반을 균형 있게 구축하며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9. 안전관리부



안전관리이사

이 재 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사선안전부장

김 효 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도관리부장

김 석 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회원 여러분의 안전한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의료 기술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문성은 확고한 '안전'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업무의 핵심인 방사선 발생장치의 철저한 정도관리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안전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모일 때, 우리 협회는 가장 안전하고 전문적인 단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부는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사고 없는 의료 환경, 건강한 방사선사'의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대 시·도회장, 전문학회장 명단

시·도회장

구분	시·도회	성명
1	서울특별시회	임종천
2	부산광역시회	윤상근
3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4	인천광역시회	황덕기
5	광주광역시회	정명진
6	대전광역시회	이진욱
7	울산광역시회	권인혁
8	경기도회	곽호영
9	강원특별자치도회	이홍규
10	충청북도회	임기선
11	충청남도회	김미영
12	전북특별자치도회	정병화
13	전라남도회	최현철
14	경상북도회	김상희
15	경상남도회	임성은
16	제주특별자치도회	고은남

전문학회장

구분	전문학회	성명
1	대한방사선과학회	민정환
2	대한방사선치료학회	윤일규
3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구혜정
4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박훈희
5	대한방사선보건학회	
6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양선욱
7	대한영상치의학기술학회	김승태
8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	석종민
9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이임범
10	대한CT영상기술학회	장상규
11	대한의료영상정보관리학회	원준재
12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	박양묵
13	대한유방영상기술학회	홍동희
14	대한군진방사선학회	김대오



대한방사선사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성료

제26대 회장 박종창, 부회장 김진의 당선



선거 모습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2월 28일(토) 건국대학교병원 강당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제 25대 집행부의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6대 회장·부회장 및 감사,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정환 회장을 비롯해 김건중, 조남수, 이준일, 이용문, 우완희, 조영기 전임회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상임이사와 전국 대의원, 전문학회 회장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는 차상영 이사가 맡았으며, 재적 대의원 276명 중 263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총회가 진행되

었다. 이현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회무·재무 운영을 회원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사업 성과와 예산 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총회의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협회의 투명성과 회원 권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총회를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한 한정환 회장은 총회사에서 “협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제25대 임원진과 함께 맡은 책무를 수행하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대



박종창 회장(중앙), 김진의 부회장(우측)

의원과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방사선사의 권익 보호와 직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방사선사 윤리강령 낭독이 진행됐다. 윤리강령 낭독은 대의원 중 면허번호가 가장 낮은 47071번 한규태 서울특별시회 대의원이 선창하고, 참석 대의원 전원이 함께 제창하며, 방사선사로서의 사명과 윤리적 책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이현용 의장의 진행으로 전차 회의록 접수, 2025년 회의 및 사업보고, 중앙회 및 전문학회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6년도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관 개정의 건 ▲(사)대한방사선사협회 대의원 운영 규칙 개정의 건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선거 규칙 개정의 건 ▲제26대 회장부

회장 선출의 건 ▲제31대 감사 선출의 건 ▲제17대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기타 안건 등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제26대 회장·부회장 및 감사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의원총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임시 의장 주재로 실시됐다. 임시의장은 출석 대의원 중 최연장자인 김건중 전임회장이 맡았다. 선거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선거인명부 확인 후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기표대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거관리위원장 박상웅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제26대 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최정욱 회장 후보와 김은성 부회장 후보, 기호 2번 박종창 회장 후보와 김진의 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총 선거인수 276명 중 261명이 투표에 참여해 94.57%의 투표율(기권 15명)을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박종창 회장 후보와 김진의 부회장 후보가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김동환·유세중·문철홍·박성모 부회장

146표(55.94%)를 득표해 당선됐다.

부회장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선거인수 276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해 95.29%의 투표율(기권 13명)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유세중(55표), 김동환(43표), 문철홍(43표), 박성모(35표) 후보가 각각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제31대 감사 선거 역시 총 선거인수 276명 중 263명이 투표에 참여해 95.29%의 투표율(기권 13명)을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이익표(81표), 이준석(64표), 조희근(60표) 후보가 감사로 당선됐다.

제17대 대의원총회 의장 선거에서는 이현용 후보가 223표의 찬성으로 당선됐으며, 부의장에는 차재열 후보가 248표를 득표해 선출됐다.

제26대 회장으로 당선된 박종창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회원 여러분의 선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방사선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 중심의 협회를 만들고,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제26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협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의장, 부의장 당선



사진 왼쪽부터 조희근·이준석·이익표 감사

대한방사선사협회, 국민 건강권 위한 “통합돌봄법 성공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필수”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돌봄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 반영 촉구
의료기사법 ‘지도’에서 ‘처방과 의뢰’로 개선 및 명확화 필요 강조



통합돌봄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대한방사선사협회(제25대 회장 한정환)가 소속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최보윤, 박주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

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과 방문형 의료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의료현장의 실제 상황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통합돌봄지원법 논의를 위한 토론회 참석 패널

지역사회 기반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아온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기사법 '지도'에서 '처방과 의뢰로' 개선 필요성 제기

이날 논의에서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현행 법령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의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문형 검사 및 지역사회 기반 의료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적 한계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정책 발표 진행 모습



가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방사선 검사를 위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물리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방사선사가 가정이나 요양시설 등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휴대용 X-ray 및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검사를 수행하고, 의료진이 해당 결과를 판독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경우, 폐렴, 골절, 낙상 등 주요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서 국회·정부·환자단체 참여 속 통합돌봄 의료기사 역할 공식 논의, '원 팀으로 움직이는 다학제 협업'은 통합돌봄 성공 열쇠임을 강조

첫 발제는 전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하여-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다학제 협업과 의료 기사등의 역할, 그리고 의료기사법 개정의 의미' 라는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권 전 장관은 통합돌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 복지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결'이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의사 단독이 아닌 의료기사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인력이 협력하는 다학제 기반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좌장은 남인순 국회의원, 토론자는 보건복지부 광순현 보건 의료정책관, 대한노인회 김우중 사무총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중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 등 정부, 환자단

체, 보건 의료 및 복지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통합돌봄 정책의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국민 중심 통합돌봄 실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대한방사선사협회 제25대 한정환 회장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과 의료기사 역할 확대 필요성이 논의된 점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지도' 중심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 기반으로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 의료 체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법적 역할이 의료현장에서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중심의 보건 의료 환경 조성 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 참석 주요 내빈 및 의료기사단체 대표 단체 촬영

대한방사선사협회, '2025년 제53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예비 방사선사 격려

전국 시험장 방문해 응시생 응원...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새로운 출발 기대"



대한방사선사협회(제25대 회장 한정환)는 지난 2025년 12월 20일(토) '2025년 제53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이 전국 지정 시험장에서 시행되어, 미래 보건의료 현장을 이끌어갈 예비 방사선사들이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첫 관문을 도전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사 국가시험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 취득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가 자격시험으로, 방사선 이론과 영상의학, 핵의학, 방사선치료, 방사선 안전관리 등 전문 직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임원진은 국가시험에 응시한 예비 방사선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험 당일 이른 아침부터 시험장을 직접 방문했다. 협회 임원진은 서울 가락중학교를 비롯

한 시험장을 찾아 응시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동안 국가시험 준비를 위해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신구대학교에 방문한 협회 임원진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값진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시험은 끝이 아니라 방사선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방사선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앞으로도 예비 방사선사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역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2025 국제전문방사선사 (IABSRT) 이사국 회의' 참석

대한방사선사협회(제25대 회장 한정환)는 최근 태국에서 열린 국제 전문방사선사 시험 운영 협의 회의에 참석해 2026년도 국제 문항 개발 및 시험 운영 계획, 각국 학술대회 일정 등을 논의하며 아시아 지역 방사선사 자격제도의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태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 대표단이 참석해 국가별 시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회의 참석자

- 태국 Sala Ubolchai, Napapong Pongnapang, Yudthaphon Vichianin
- 한국 한정환 회장, 최용석 전문방사선사시험위원장, 안다경 과장이 대표
- 일본 Naoki Kodama, Hideki Shibata
- 대만 Hou Kuei-Yuan, Huang Ya-yu, Huang Yi-Chun

2026년 국제시험 운영 일정

- 개발 문항 교환: 2026년 5월 31일
- 1차 출제 문항 확정: 2026년 6월 30일
- 2차 출제 문항 확정: 2026년 7월 31일
- 시험 시행: 2026년 8월 30일

회의는 의장국인 태국 회장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으며, 이후 국가별 참석자 소개와 함께 2025년도 국제시험 결과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각국은 응시자 규모, 합격 현황, 운영상의 개선 사항 등을 상호 점검하며 시험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은 2026년도 시험을 2025년과 동일하게 연 2회 시행할 계획임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시험 운영과 응시자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을 설명했다.

각 국가는 자국의 임상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반영한 분야를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6년 국가별 국제 문항 개발 계획

- 태국 MIIA (일본과 공동)
- 한국 Mammo, RT, NM
- 일본 RSM, MRSM, MRI
- 대만 CT, US

2026년 각국 주요 학술행사 일정

- 태국 '제34차 태국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2026년 5월 7일~9일 Grand Palazzo Hotel Pattaya(춘부리)
- 한국 '제61차 대한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2026년 10월 3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 일본 '제42차 일본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및 제33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2026년 9월 11일~13일 야마가타
- 대만 '제59차 대만 방사선사 국제학술대회' 2026년 3월 21일부터 22일 가오슝
- '제26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학술대회(AACRT)' 2027년 4월 23일~25일
- 차기 회의 일정: 2026년 12월 12일~13일 서울

기타 안건으로는 IABSRT 자격증 갱신 제도에 대해 국가별 제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또는 재시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 전문방사선사 자격제도의 체계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방사선사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문성 기반의 국제 표준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61차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 개최

제26대 서울특별시회 회장 임종천, 부회장 김권수 회원 당선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2026년 1월 24일(토) 14시부터 18시까지,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23호에서 재적 시의원 104명 중 출석 64명(참석 47명, 위임장 17명)으로 '제61차 서울특별시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 의장으로는 김학문 시의원(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선출되었으며, 의장의 진행 아래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감사보고, 전자 회의록 접수, 2025년도 주요 회무보고,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 승인의 건, 2026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2026년도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다. 상정된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의 결되었다.

정기총회에 이어 제26대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회장·부회장 및 감사, 시의원 선거 개표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투표는 이 날 8시부터 18시까지 온라인/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김학문 의장은 '제26대 서울특별시회 회장·부회장 및 감사, 시의원 선출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기로 시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받았다.

제26대 시의원 선거 개표 결과로 각 소속구 배정인원 54명 중 입후보 14명으로 무투표 당선 14명이 확정되었으며, 제26대 감사는 배정인원 2명 중 입후보 2명으로 기호 1번 임연진 후보(한국의학연구소 강남검진센터), 기호 2

번 정민수 후보(삼성서울병원)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제26대 회장·부회장 선거는 선거권자 3,525명 중 2,382명이 참여해 투표율 67.57%를 기록했다. 개표 결과, 기호 1번 장재인, 장윤태 후보는 1,160표(48.70%)를, 기호 2번 임종천, 김권수 후보는 1,222표(51.30%)를 각각 득표하여, 기호 2번 임종천 회장, 김권수 부회장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다.

당선이 확정된 임종천 회장 당선자는 소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회원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회무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서울특별시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권수 부회장 당선자 역시 소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회장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5년도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지난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회장 박성모)는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와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2025년도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하였다.

올해로 3년째 이어지는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었다. 박성모 회장을 비롯한 임원 4명과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김정수 교수 및 학생봉사자 11명이 함께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자발적인 후원으로 행사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연대의 가치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김장을 준비하며 협력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고, 완성된 김치는 중랑구 관내 취약계층 118가구에 전달되어 겨울을 앞둔 이웃들에게 큰 온기를 전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전순영 관장은 "매년 꾸준히 이어지는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된다"며, "특히 전문 직역 단체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성모 회장은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며, "매년 당연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해 주시는 회원들과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김장 나눔 봉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는 전문 직능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 행동하는 의사회 업무협약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행동하는 의사회 업무협약(MOU) 체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2025년 12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행동하는 의사회와 <방사선 촬영 지원 업무에 관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박성모 회장, 장재인 부회장, 서정범 섭외이사가 참석했으며, 행동하는 의사회에서는 임석영 이사장과 이은영 사무국장이 함께해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행동하는 의사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수행해 온 단체로,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 또한 공공의료 지원과 전문 직능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양 기관은 의료봉사 현장에서 정확하고 안전한 영상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 협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



은 의료봉사 활동 시 인력 지원 및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 취약 계층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앞으로도 유관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전문 직능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공공 의료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제26대 서울특별시회 임원 공모제 시행

제26대 집행부 공약 '임원공모제' 시행 및 공개 모집 및 결과 안내

서울특별시회는 제26대 집행부 공약사항의 하나로 임원 공모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임원 공개 모집을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임원공모제는 기존의 선임 방식에서 나아가, 의지와 역량을 갖춘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임원 선발 제도로, 회무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제26대 집행부는 본 제도를 통해 회원 중심의 조직 운영과 책임 있는 회무 수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공개 모집 기간 동안 다수의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

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원공모제가 회원 참여 확대와 회무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했음을 확인하였다. 접수된 지원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되었으며, 향후 각 부서의 역할과 회무 방향에 부합하는 인선을 통해 '제26대 서울특별시회 임원'이 구성되었다.

서울특별시 방사선사회는 이번 임원공모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열린 조직 운영과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제61차 정기 시의원 총회' 개최 및 제26대 회장 선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1월 20일 오후 6시, 부산 아스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61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부산시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요 안건 심의 및 시상식 진행

이날 총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심의의결되었다. 또한, 부산시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 부산광역시장 표창
시영철(고신대복음병원), 박경한(메리놀병원)
-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표창
배진성(동아대학교병원)
- 부산광역시의료기사회협회회장 표창
김성미(부산성모병원)
- 부산광역시방사선사회 표창장
박재현(부산백병원), 전현미(세계로병원)
- 부산광역시방사선사회 공로패
이득원 원로

- 방사선학과 학생 표창장
권민지(동서대학교), 류연정(부산가톨릭대학교), 이현주(동의대학교), 이준혁(동의과학대학교), 김찬주(춘해보건대학교)

제26대 회장 선거: '윤상근-강은보' 체제 출범

제26대 임원 선거에서는 윤상근 후보(부산대학교병원)가 신임 회장으로, 강은보 후보(동의과학대학교)가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윤상근 당선인은 정견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여겠다"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 안전하고 신뢰받는 방사선사 사회 구축
- 회원 중심의 시회 운영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 방사선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 사회적 역할 확대 및 인식 개선
- 투명한 회계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함께 한 60년의 감사, 함께 할 미래의 희망"

윤주호 제25대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지난 6년 임기 동안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의 신뢰와 협력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26대 집행부가 부산시회를 더 큰 비전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협회의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부산시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부산시회는 윤상근 신임 회장 체제 아래 회원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회 방사선사회, 베트남 국제 컨퍼런스(NVART International Conference) 참가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시회는 2025년 12월 5~6일 베트남에서 열린 'NVART 국제 컨퍼런스(NVART Internation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한국의 수준 높은 방사선 기술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부산시방사선사회(BRTA) 윤주호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지역 내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회원들이 참여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술적 교류를 가졌으며, 특히 5명의 전문가가 각 분야의 핵심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주요 발표 내용 및 연구 성과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방사선 치료, 중재적 기술, 진단 영상 인공지능(AI) 등 방사선학 전반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방사선 치료의 정밀도 향상: 부산대학교병원 박성국 방사선사는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피두셜 마커(Fiducial Marker)'의 전자 밀도 보정이 선량 분포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 밀도 보정을 적용할 경우 타겟 선량 오차를 줄여 치료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I 기반 환자 선량 관리: 동아대학교병원 김호진 방사선사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노출 지수(Exposure Index, EI)'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이는 제조사별로 상이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선량 정보를 시로 보완하여 환자 안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중재 기술의 최적화: 부산대학교병원 서경두 방사선사는 응급 동맥 출혈 관리 등에 쓰이는 흡수성 색전 물질의 효율적인 분산을 위해 조영제와의 적정 혼합 횟수(15회) 및 비율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임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사선 치료 10년의 변천사: 아산병원 백금문 대한방사선치료학회 회장은 지난 10년간의 방사선 치료 혁신 기

술을 정리하며, AI 기반 계획 및 적응형 방사선 치료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임상 증례 보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박경식 방사선사는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가돌리늄 조영제의 뇌척수액 내 잔류 현상에 대한 증례를 발표하여, 영상 판독 시 주의사항과 임상적 시사점을 전달했다.

국제적 위상 강화 및 학술 교류

이번 행사에는 윤주호 BRTA 회장은 "이번 NVART 컨퍼런스는 한국 방사선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시회, 회원 100명과 함께하는 '영화 아바타' 문화행사 성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2025년 12월 17일, 소속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보건의로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감동과 기술의 향연, '아바타' 단체 관람

참석한 100명의 회원들은 최신 영상 기술의 집약체인 영화<아바타>를 함께 관람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소통과 유대감 강화의 장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며 재충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원 복지와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

윤주호 부산시회 회장은 "이번 행사가 회원들에게 작은 위로와 활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사선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즐거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회 제 45차 정기 총회



- 일시 : 2026.01.27. 19시
- 장소 : 호텔 라온제나
- 참석 : 김청모 회장 외 임원 20명 및 시의원 94명

2026년 1월 27일 호텔 라온제나에서 45차 정기총회를 진행 하였다. 이날 총회는 대구광역시 전임회장들을 포함한 각 시도회장 그리고 한정환 협회장이 참석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다. 그리고 예년과 달리 94명의 시의원이

참여 하는 등 협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 할 수 있기도 하였다.

1부 진행은 협회의 운영, 재무, 감사 보고로 이루어 졌으며 2부 순서로 2026년 협회 운영을 위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6년 1월을 끝으로 지난 3년간 협회를 위하여 봉사해 온 17대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므로 2026년부터 새롭게 18대 임원단 구성을 위한 투표도 함께 진행 되었다.

회장 후보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청모 회원(17대 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박원규(17대 총무이사) 회원이 단일 후보로 출마 하였다. 투표는 선거관리 위원회 입회하에 현장에서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되었으며 투표 결과는 찬성 97.44%, 반대 2.56%로 18대 회장으로 김청모, 박원규 후보가 당선 되었다.

당선 소감으로 회원들을 위해 한발 더 다다가는 협회와 보다 발전되는 협회를 위해 봉사 할 것을 약속하였다.



방사선사 국가고시 응원

- 일시 : 2025년 12월 20일
- 장소 : 대구공업고등학교
- 참여 : 김청모 회장 외 14명

지난 12월 20일 토요일 새벽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예비 방사선사들의 합격을 응원하기 위해 김청모 회장을 포함한 대구광역시회 임원들이 자리에 모였다.

김청모 회장은 국가고시를 위해 긴장감을 안고 입장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원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국가고시 입장이 완료된 이후 응원을 위해 자리한 각 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학교와 현장 그리고 새내기 방사선사라는 주제로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기도 하였다.



제빵 봉사에 나선 대구 방사선사

- 일시 : 2025년 12월 20일
- 장소 : 사랑의 빵 농터
- 참여 : 김청모 회장 외 13명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김청모 회장 외 13명의 임원과 회원은 12월 20일 지역사회를 위해 제빵 봉사를 진행하였다. 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는 매년 제빵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봉사를 이어오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청모 회장은 주말 어렵게 시간을 내어준 임원 및 회원



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우리의 작은 노력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며 작은 행동이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 행사



2025년 11월 29일 성인의집에서 올해 마지막 릴레이 봉사활동과 함께 쌀 기증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활동에는 인천성모병원 소속 회원들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이어진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은 내부 물청소와 주방 기름때 제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이어온 릴레이 봉사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주요 생활 공간과 공용구역을 정비하며 시설 전반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였고,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쌀을 전달하는 기증식이 함께 진행되어 환경 정비를 넘어 실질적인 나눔의 의미를 더하였다. 기증식은 관계자들과 함께 간단히 진행되었으며, 전달된 물품은 시설 운영과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는 있다.”라는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온 릴레이 봉사활동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의미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활동으로 올해 예정된 릴레이 봉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5차 온라인 보수교육

2025년 11월 22일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제 5차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인천광역시회가 마련한 연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교육은 총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심장 MRI 검사의 이해를 주제로 Cine 영상의 활용, Phase contrast 기법의 시간 해상도 특성, 관류검사를 통한 심근 허혈 평가, T2 mapping의 임상적 의미 등 심장 MRI 검사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 다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간암의 비수술

적 인터벤션 치료를 주제로 간암의 발생 특성과 치료 접근 방법이 설명되었으며, TACE와 간이식의 치료 효과 비교, 방사선색전술에 사용되는 Y-90의 특성 등 영상중재적 치



료의 최신 지견이 정리되었다. 세 번째 세션은 최근 의료동향 및 방사선사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종합병원 개설 시 승인 요건, 방사선사의 면허 신고, 의료영상 보관 기간, 안전관리 장비의 정기검사 기준 등 실무에서 숙지해야 할 법제도적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CT 고급 3D 처리 기법을 주제로 MPR의 원리,

MINUS 기법의 개념, 영상 재구성과 이미지 퀄리티의 관계, 3D 프린팅의 임상적 활용 목적 등 CT 영상의 확장적 활용 가능성이 폭넓게 소개되었다. 이번 제5차 온라인 보수교육은 각 분야의 핵심 내용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한 해의 마지막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제 45차 정기총회



2026년 1월 31일(토)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회관에서 제45차 정기총회가 14시 30분부터 17시 20분까지 개최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방사선사 윤리강령 낭독, 내외빈 소개에 이어 박종창 회장의 개회사와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의 격려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시의원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교육연수원 건립기금 보고와 인천시회 홍보영상 시청이 이어졌다. 이후 표창장 수여식이 거행되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 표창>

- 인천기독병원 김선경 회원
- 가천대학교 임세원 회원
- (의)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채중상 회원

<대한방사선사협회 표창>

- 감인의료재단 청라백세요양병원 최병래 회원

<국회의원 표창>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원승재 회원
- 부평힘찬병원 윤경덕 회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표창>

- 인하대병원 박성환 회원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박진형 회원

<인천시장 표창>

- (의)길의료재단 길병원 이용기 회원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최효준 회원

<감사패>

- 삼성메디슨
- 지안검진센터 정지현 회원

<봉사상>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영상의학팀

이어 회장 후보 경선발표가 진행되어 기호 1번 주국환 후보와 기호 2번 황덕기 후보가 각각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선거 결과 감사에는 김병식, 윤일 회원이 당선되었고 회장·부회장에는 황덕기 회장과 이왕희 부회장이 각각 당선되었다. 이후 폐회선언을 끝으로 제45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으며,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로 기록되었다.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김상희 회장 연임 확정... “회원 권익강화 박차”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가 김상희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다시 한번 선출하여 안정적인 리더십 체계를 구축했다. 경상북도회는 지난 1월 10일 안동시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제68차 정기도의원총회”에서 제 26대 임원, 감사, 분회장, 도의원 선출에 대한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날 총회에는 도의원 21명이 현장에 참석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높은 관심속에 심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경북도회는 회원 직선제 선거방법으로 회원들이 직접 회장, 부회장, 감사, 분회장, 도의원을 선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정책과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경북도회 김상희 회장의 연임은 지난 임기동안 보여준 회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김상희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의 임기동안 방사선사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임상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경북도회 제68차 정기도의원총회에서는 제26대 임원, 감사, 분회장, 도의원 선출 의결의 건과 더불어 미래를 위한 주요 안건들이 심의의결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혁신에 대응한 미래전략적 사업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승인과 2025년 주요회무 보고 및 결산보고, 성공적인 학술대회 결과보고 등 회무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철저히 심의되어 의결되었다.

김상희 회장의 연임으로 경북도회는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경북도회는 올해 방사선사의 권익신장,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 회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핵심

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사선 기술발전과 최신의료정보 공유, 대면 현장에서의 소통화 화합 강화를 위해서 제6차 학술대회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보수교육 5회이상 계획하여 회원접수, 퀴즈풀이 등 시스템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연간 계획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북지역내 보수교육 강사를 다양한 전문분야로 양성하기 위해서 보수교육강사워크샵을 통해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지역내 강사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율 증가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여한 회원의 소리를 청취에서 정책에 반영하는 등 회원권익신장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의 조복연 의장은 “회장 연임과 함께 새롭게 구성될 제26대 집행부가 경북도회 방사선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방사선과학회, 2026년 제49차 정기총회 성료... 5월 춘계학술대회 개최 예고



대한방사선과학회는 지난 2월 6일(금), '2026년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2025년도 성과 결산 및 2026년도 주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부서별 지난 사업 성과를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운영 방안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회는 올 한 해도 회원들의 학술 역량 강화와 방사선 과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철 전임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학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격려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회 발전에 헌신하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인 회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영예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공로상
이인자 교수 (동남보건대학교)
- 방사선과학자상
이경배 교수 (원광보건대학교)
- 젊은 과학자상
김예지 (동서대학교)

한편, 대한방사선과학회는 오는 5월 16일(토),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방사선과학회 민정환 회장은 "이번 춘계학술대회 50주년과 더불어 임상과 학술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KSCV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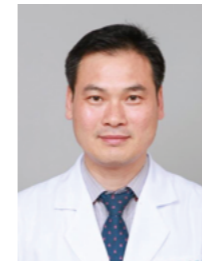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는 2026년 1월 31일 LS용산타워 28층 회의실에서 제30차 정기 평의원총회를 열고 2025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 2026년 사업계획·예산 확정, 회칙 개정과 함께 제12대 회장·감사를 선출했다. 총회에는 전국 평의원회와 전임 회장, 임원, 감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성원 보고에서 제적 평의원 52명 중 참석 47명(위원장 3명 포함)으로 성원이 성립됐다. 회의는 송창욱(서울대학교병원) 전임 회장을 평의원 의장으로 추대해 진행됐다. 학회는 이날 '2025년 회무·재무 보고 및 결산 의결, 감사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의결'을 처리하고, 회칙 개정으로 부회장 직제 축소와 권역 이사 신설을 확정했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방사선사 보수교육을 총 6차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으며, 주요 학술 일정과 연수강좌의 개최·참석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승인된 주요 학술 일정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춘·추계

학술대회, 2026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 연수강좌 및 춘계학술대회, 2026 ASCENT(KoNES), 2026 Summer Intensive Course(KSIN), IGET Live 2026, 2026 보험연수 교육 등이 포함됐다. 신임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됐다. 제12대 회장으로 이임범(아주대학교의료원) 수석부회장이 선출됐고, 감사에는 김성룡(삼성서울병원), 안주용(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2명이 선출됐다. 모든 의안 심의가 끝난 뒤, 평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송창욱 의장이 동의(김종덕 외)와 재청(이동환 외)을 받아 총회를 폐회했다. 대한인터벤션영상기술학회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학술 기반을 강화해 인터벤션 영상기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현장 역량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 제12대 학회장 선출

MRI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강화, 대외 협력 확대



대한자기공명기술학회(회장 김준규)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시청역 부근의 스페이스에이드 회의실에서 평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재적대의원 38명 중 24명이 참석하여 과분수로 성원이 되었으

투표결과 제12대 학회장으로 서울아산병원 양선욱 후보가 당선되었고, 감사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조성봉 후보와 서울시 보라매병원 김학문 후보가 당선되었다. 양선욱 신임학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양질의 학술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선배 회장들이 학문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학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MRI 전문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침체되어 있던 학회활동의 불씨를 살려서 11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입문강좌, 안전관리 연수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학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전임 김준규 학회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며, 2025년도 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 2026년 예산안과 부서별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2월로 임기가 마감되는 학회장 및 감사 선출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지난 1월16일부터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무기명 투표로 학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 + 교보문고(Scholar) 학술 논문 디지털 콘텐츠(e-Book) 협력 성과

대한핵의학기술학회(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SNMT / 회장: 정우영, 편집위원장: 서한경)는 국내 핵의학 기술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임상 현장의 의료 진단 정보 향상을 목표로 1977년에 설립한 학술 단체로서 1983년에 ‘대한핵의학검사학회지’를 창간하였고, 1985년에는 ‘대한핵의학연구학회지’를 창간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두 개의 학술지를 통합하여 『핵의학기술, KJNMT(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학술지를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편, 교보문고는 국내 최대의 서적 유통 및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학술 정보의 대중화와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 양 기관의 학술업무 제휴(2024년 3월 9일 협약 체결)는 핵의학 분야의 학술 논문과 연구 성과를 디지털 콘텐츠화하여 보다 폭넓은 학술 가치를 회원과 공유하고 일반인에게 확산함으로써, 핵의학 기술 및 학문, 관련 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논문의 디지털화 및 플랫폼 통합을 이루어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학술지와 연구 자료가 교보문고의 디지털 플랫폼(교보 eBook, 스콜라 등)을 통해 서비스되면서 자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연구자 및 의료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도 관련 논문을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구자의 저작권 보호 및 수익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교보문고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은 연구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함께 합리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후속 연구 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한편 교보문고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의 콘텐츠가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독자 및 연구기



대한핵의학기술학회+교보문고(Scholar) 업무협약 체결



교보문고(Scholar) 웹사이트, 대한핵의학기술학회 간행물

관에 노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해외 논문 등록이나 다국어 번역 등의 확장도 가능해졌다. 종이 기반의 학술지에서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은 학회 활동의 현대화뿐 아니라 지식 소비의 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한 조치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 전달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핵의학기술 연구자들은 최신 논문과 임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공유함으로써 의료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근거 중심의 의료 행위(Evidence-Based Practice)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학술 논문 공유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서, 핵의학과 영상의학, 핵물리, 원자력공학, 물리학, 생명과학, AI 등의 융합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 외의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논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나라 핵의학 기술의 학문적 위상이 향상될 수 있다. 실제 2024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한의사협회 등 75개 기관)와 국외(Rikyo Univ., Kansai Univ., Setsunan Univ., Emory Univ.,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등 23개 기관) 학술기관에서 교보문고(Scholar)를 통해 ‘핵의학기술’을 열람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핵의학기술학회와 교보문고 간의 전략적 업무 협력은 임상 핵의학 분야 학술 정보의 접근성 확대, 디지털 시대의 지식 전달 구조 혁신, 그리고 핵의학 연구의 국제적 위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핵의학기술(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orean J Nucl Med Technol) 웹사이트

며,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단순한 학술 콘텐츠 제공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학술 생태계 조성과 국내 핵의학 기술의 글로벌 확산 및 핵의학 임상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 ‘핵의학기술, KJNMT’ 2025년 한국연구재단(NRF) 등재(후보)지 선정



대한핵의학기술학회(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SNMT / 회장: 정우영, 편집위원장: 서한경)가 발행하는 공식 학술지 『핵의학기술, KJNMT』는 한국연구재단(NRF) 주관 ‘2025년도 학술지 신규 평가’에서 등재(후보) 학술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은 국내 핵의학 기술 분야의 학문적 전문성과 학술지 운영의 안정성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는 국내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검증 절차로, 이번 결과를 통해 『핵의학기술, KJNMT』는 명실상부한 전문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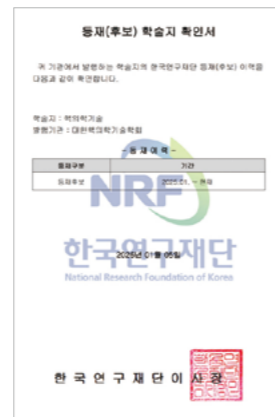
이번 평가에서 『핵의학기술, KJNMT』는 다각적인 심사 기준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논문집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투고 논문 심사제도의 구성성 및 엄정성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학계에서 중요시되는 '연구(출판) 윤리 강화 활동'의 구성성과 엄정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투명한 학술지 운영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학회 편집위원회를 중심으로 논문의 질적 관리와 편집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쏟은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등재(후보) 학술지 선정은 향후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등재지로 승격하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회원들의 연구 실적이 대외적으로 더욱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선정은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끊임없이 정진해온 회원들의 학문적 열정이 일궈낸 값진 성과이며, 『핵의학기술, KJNMT』가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방사선사들과도 학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핵의학기술, KJNMT』는 단순한 학회지를 넘어, 국가적 공신력을 갖춘 학술 매체로서 국내외 방사선사 및 핵의학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이번 성과를 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핵의학기술, KJNMT』은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에 등재되어 있어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검색되고 있으며, 이라크, 일본, 대만 등 중동 및 아시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논문을 투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논문 심사 역량을 갖춘 일본, 대만의 연구자를 논문 심사자로 초빙하여 글로벌 저널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논문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제적인 학술 네트

워크를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영문 초록의 질적 향상과 투고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해외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핵의학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진해주신 모든 회원의 노고 덕분이며, 앞으로도 『핵의학기술, KJNMT』가 핵의학 기술 분야의 중심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핵의학기술학회는 앞으로도 핵의학 분야 방사선사의 전문성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해 학술적 깊이를 더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핵의학기술 (The Korean Journal of Nuclear Medicine Technology, Korean J Nucl Med Technol)



한국연구재단(NRF), 핵의학기술_등재(후보)확인서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ISSUE	46
국제학회 영어 구두발표의 전략과 실제	
REVIEW	52
X-ray 장비가 생산되는 뜨거운 현장 속으로	
ESSAY	56
통찰의 지도로 그리는 방사선사의 건강 소통	

국제학회 영어 구두발표의 전략과 실제



김상진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 학술대회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무대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여 구두로 발표하는 일은, 그동안 성실히 준비해 온 연구 내용을 국제 사회에 직접 전달할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청중 앞에 서서 발표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절대 쉽지 않은 도전임이 분명하다.

저자를 포함한 많은 방사선사는 영상 검사와 관련된 주제를 국제 학술대회에서 영어로 구연 발표하는 방법이나 준비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역시 영어 구연 발표를 처음 시작한 계기는 국내 학회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International Session이었다.

이 경험을 발판삼아, 이후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직접 참가하며 영어로 논문을 발표해 왔다. 그렇게 영어 구연 발표와 국제 학회 참여의 길을 걷는 시간이 어느덧 20여 년을 넘어섰다.

지금도 새로운 연구 주제를 정하고 영문 논문을 작성한 뒤, 영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구연 발표에 나설 때면 여러 가지 고민이 뒤따른다. 발표에 사용하는 영어 표현에 오류는 없는지, 연구의 핵심 의미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론부터 결론까지의 흐름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영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 논문 심사 위원과 청중에게 의도한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영어권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 발표자로서 지금도 늘 마음 한편에 자리한 긴장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국제학술대회에서 영어 구연 발표를 처음 준비하는 방사선사들에게, 필자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방사선사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막상 영어 초록 작성과 영어 구연 발표를 처음 준비하는 과정은 막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주변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영문 논문 작성 역량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이고 관용적인 영어 표현, 즉 Standard Colloquial English에 자주 노출되고 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접근법 중 하나는, 자신이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수 참고문헌을 찾아 정독하며 자주 등장하는 영어 표현의 구조와 흐름을 체득하는 것이다.

논문 제목의 구성 방식부터 서론에서 제시되는 연구 배경의 표현, 대상 및 방법과 결과에서 사용되는 연구 결과 기술 방식에 이르기까지, 참고문헌을 통해 각 부분에서 요구되는 영어 표현의 전반적인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결론 등 논문의 각 구성 요소에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동사의 유형과 문장 전개 방식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된다.

영어 논문을 처음 작성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병원 업무로 바쁜 현실 속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기대하거나 요청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말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직역하거나 단순히 번역기에 의존해서는, 학술 논문에 요구되는 영어다운 표현을 담아내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어 논문은 고유의 형식과 흐름에 맞춰, 심사위원에게 연구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지만, 다수 논문을 꾸준히 읽으며 반복적으로 사용되



는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관용적 표현에 익숙해질 수록 국제학술대회 구연 발표에서도 학술적 의미가 잘 함축된 단어를 선택해 발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외국인 학회 참석자들에게 연구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II. 본론

1. 영어구연의 참가의 의미

국제학술대회에서의 영어 구연 발표(English oral presentation)는 발표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영어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청중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공식적인 발표 형식을 의미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 결과, 그리고 학문적 의의를 슬라이드에 구조화해 설명하고,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술적 검증과 토론을 이어가는 과정이 포함된다.

국제학회 영어 구연 발표는 포스터 발표와 달리 정규 세션으로 분류되어 학회 프로그램에 공식적으로 등재되며, 동일 분야의 해외 연구자와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발표 이후에는 다양한 질문과 코멘트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연구 내용에 대한 또 하나의 검증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어 구연 발표 경험은 국제 학술 무대에서 연구 수행 역량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개인 이력 관리나 학술 활동 실적 평가 측면에서도 각 의료기관에서 의미 있는 학술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2. 구연과 포스터 발표의 차이점

학회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술 발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포스터 발표(Poster presentation)이다.

구두 발표는 통상 약 7~8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되며, 좌장의 진행 아래 발표 시간

이 엄격하게 관리된다. 발표자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연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슬라이드로 구성하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한 영어 구연으로 전달해야 한다. 좌장과 다수의 청중이 집중해 듣는 공식적인 발표 형식인 만큼, 의미 전달이 분명한 영어 표현과 논리적인 구성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포스터 발표는 발표자가 자신의 포스터 앞에서 방문한 청중에게 개별적으로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정해진 발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를 갖고 연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청중의 관심과 이해 수준에 맞춰 보다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3. 영어구연을 위한 준비사항

학술 발표를 위해서는 연구 내용을 구연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해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국제학술대회의 구두 발표 시간은 대체로 10분 내외로 제한되며, 슬라이드 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12~20장 정도가 발표 흐름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 이러한 발표용 슬라이드는 학술대회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구성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Title & Author Information
2	Introduction / Background
3	Purpose / Objectives
4	Materials & Methods
5	Results
6	Title & Author Information Limitation / Discussion
7	Conclusion

슬라이드 작성의 기본 원칙은 긴 문장을 나열하기보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간결하게 구성하는 데 있다. 영어 표현 역시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어체적인 표현이거나 일상적인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 표(Table, Figure)나 그림(Diagram)은 별도의 장황한 설명이 없어도 한눈에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 구연 발표에서 발음, 말하기 속도, 억양과 같은 전달력 요소는 완벽함보다는 명확성이 우선된다. 평소보다 약 20~30% 정도 느린 속도로 문장 끝을 또렷하게 발음하는 것이 청중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아울러 슬라이드 간 전환 시 사용하는 연결 표현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First, I will explain...”, “Moving on to the results...”, “In conclusion...”과 같은 표현은 발표의 논리적 흐름을 분명히 하여 다음 내용으로의 전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준다.

질의응답(Q&A) 준비 역시 발표의 중요한 일부다.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등 예상 가능한 질문을 중심으로, 직장 내 동료들과의 사전 연습을 통해 답변을 영어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된다. 또한,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That is an important question.”, “We are currently investigating this issue.”, “This is a limitation of our study.”와 같은 표현을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 실제 많이 활용되는 유용한 학술적 영어구연 표현

1 인사 및 자기소개 Greeting

- 발표는 청중과 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시작한다.
- Thank you for the chairman's introduction.
- Today, I would like to present our research on...
-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is...

2 연구 서론 및 배경 Introduction, Background

-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 Despite previous research, there remains a gap in...
- This issue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because...
-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 Even though th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3 발표 목적 제시 Purpose

- 연구의 목표와 목적을 명확히 전달한다.
-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introduce...
-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ation is to introduce...
- This study aims to examine/investigate...

4 연구 방법 Material & Method

- 연구 설계와 절차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 We employed a qualitative/quantitative/mixed-methods approach.
- Data were collected through...
- The sample consisted of...
- We used electro-questionnaire investigation to survey...

5 연구 결과 Result

- 연구 결과를 명확히 전달한다.
- The results indicate that...
- As shown in this figure/table...
- We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6 논의 Discussion

- 결과의 의미와 해석을 설명한다.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7 결론 Conclusion

- 연구의 핵심 메시지와 시사점을 요약한다.
-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 Th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8 한계점 Limitation

- 연구의 제한 사항을 솔직히 전달한다.
- This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 First, the sample size was limited.
- Therefore,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9 질의응답 Question & Answer

- 질문에 대응할 때 상황별 표현을 활용한다.
- 질문 이해 및 감사: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t is an important/interesting question.
- 즉답 가능: Based on our data,..., According to our analysis,...
- 즉답 어려움: We have not fully examined this issue yet. This is beyond the scope of the current study. That is an important point for future research.

10 발표 종료 Closing

- 발표를 마무리하며 청중에게 감사와 질의응답 기회를 안내한다.
-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I would be happy to take any questions.
- Thank you for listening.

III. 결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한국인에게, 국제학술대회와 같은 공식 영어 발표 환경에서 완벽한 구연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사선사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 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일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업적을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구의 핵심 내용과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다. 원어처럼 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며, 발표가 채택·초청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연구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입증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구연 발표는 발표자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지, 영어 실력 평가를 위한 시험이 아니다. 실제 학회 현장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들이 발표 중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므로,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

발표를 준비할 때 모든 문장을 암기하기보다는, 연구의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고 청중에게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자 역시 처음 참가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 차례 실수를 경험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다음 연구와 발표를 준비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실수와 긴장은 발표자가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경험을 쌓는 것이다. 국내 국제학회 세션이나 소규모 학회부터 시작해 영어 구연 발표에 익숙해지고, 해외 학술대회 참여 경험을 늘리면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발표자는 청중에게 연구 성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학술적 토론에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영어 구연 발표의 핵심은 완벽한 언어 구사가 아니라, 연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학술적 가치를 공유하는 데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발표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국제학회 영어 구연 발표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연구 능력과 학술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검증받는 소중한 기회다. 준비와 연습, 그리고 경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영어 발표 역시 충분히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



X-ray 장비가 생산되는 뜨거운 현장 속으로



김진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DRGEM의 김천 공장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이름은 바로 스마트 팩토리 (SMART FACTORY)이다.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공장의 공간을 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장 1층 입구를 지나 먼저 우리의 눈에 띈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공장 내 벽면에 크게 걸려 있었다. 그만큼 직원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 DRGEM 회사의 신념을 알 수 있었다.



3층으로 이루어진 공장을 보면, 1층은 부품 및 물류 창고와 완제품 출고장이 위치하여, 부품의 입고와 완제품의 글로벌 물류망으로의 출고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2층은 X-ray 시스템의 핵심을 완성하는 생산라인이 위치하고 있었다. 생산 및 조립 그리고 실제 제품 출고 전 확인을 위한 검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첨단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의료 영상 장비의 특성상 최종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테스트와 실제 조립을 숙련된 기술자의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3층은 대외 협력 및 직원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DRGEM 제품에 대한 홍보관과 회의실, 그리고 직원 식당이 위치하여 고객 및 파트너와의 소통과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직원 복지를 위한 식당 공간을 건물의 가장 상부층에 위치시킨 것은 식사 시간만이라도 주변 경관을 보며 휴식을 취하라는 회사 운영진의 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공장 투어 중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자재 입고 창고였다. 그곳에는 펜스가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입고 창고에 도착한 자재들은 사전에 엄격한 검수를 거쳐 검수 기준에 적합

한 자재만 입고시킨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다. 방문했을 때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자재를 일일이 확인하며 점검하고 있었다. 수기로 직접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점검한 자재들은 종류가 생각보다 많았는데, 많은 종류의 자재들이 모두 X-ray 장비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재가 입고되면 효율적인 자재 관리가 필요한데,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라는 이름에 걸맞게 재고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효율적인 자재 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자재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바코드를 등록하고 부착하여 먼저 입고된 자재가 먼저 사용되는 선입선출 방식이 적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하였다. 부품의 제조 및 입고가 오래된 주요 부품이나 자재들은 완제품 생산 시 성능 저하나 불량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재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공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자재 입고 창고를 지나 이어서 도착한 곳은 완제품 출고장이었다. 출고장의 규모와 공간이 상당했지만, 출고장에는 이미 생산이 완료되어 설치 및 배송을 기다리는 많은 장비가 놓



여 있었다. 대다수 완성된 제품의 출고지는 국내가 아닌 해외를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보다 높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장비의 특성상 계약이 완료되어야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의료장비는 재고가 별도로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별도의 제품 보관창고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출고장을 둘러본 뒤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본격적으로 장비가 생산되는 생산라인이 위치한 곳이다.

생산라인이 있는 2층은 1층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었다. 2층 공장에서는 X-ray 장비에 필요한 부품과 부품들을 실제로 조립하는 구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DRGEM은 X-ray 장비의 주요 부품인 X-ray 튜브와 고전압 발생장치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먼저 방문한 곳은 고전압 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구역이었다. 고전압 발생장치는 X-ray 튜브에 고압의 전기를 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이러한 핵심 부품을 DRGEM에서는 직접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고전압 발생장치를 생산하는 공간에서는 일체의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복장을 착용하고 생산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구역에서도 작업자가 수기로 조

립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생산된 고전압 발생장치를 테스트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고전압 발생장치와 X-ray 튜브를 연결하여 설정된 수치의 관전압과 관전류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추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테스트 공간을 나와 복도에서 마주한 것은 조립이 완료된 X-ray 장비 테이블이었다. 테이블은 포장되어 복도에서 열을 맞춰 서 있었다. 생산된 테이블은 X-ray 장비의 주요 파트 조립이 완료되면 출고 창고로 이동해 출고를 기다린다고 했다. 인상적이었던 점은 X-ray 장비의 상판이 다양한 크기와 재질로 준비되어 있고, 주문한 스펙에 맞춰 조립이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특히 카본 재질의 상판은 X-ray 흡수를 최소화해 피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기존 재질의 상판보다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의 곳곳을 이동할 때마다 직원들이 장비를 손수 조립하고 있었다.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조립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립 중인 제품에는 향후 설치될 병원의 이름이 붙어 있



었다. 한 직원이 세심한 손길로 조립하는 모습을 보니 국내에서 세계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X-ray 장비 회사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실제 눈앞의 과정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이해가 더 쉬웠다. 장비의 조립은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었으며, 구역을 지날 때마다 완제품과 유사한 형태가 갖춰졌다. 특히 이동형 X-ray 촬영 장비는 구역을 이동할수록 완제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X-ray 촬영 장비 이외에도 동물병원·야외 촬영용 X-ray 장비도 생산하고 있었는데, 두 장비 모두 비교적 크기는 작았지만 목적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초소형 X-ray 촬영 장비는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장비가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장비라고 덧붙였다.

제품 생산 구역을 둘러본 뒤 현재 판매 중인 장비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관으로 이동했다. 체험관에는 모든 검사 포지션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장비가 움직이는 APR (Anatomical Programmed Radiography) 장비와 이동형 X-ray 촬영 장비가 전시되어 있었다. APR 장비는 DRGEM

에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로, 최근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제작했다고 한다. 바로 옆에는 이전 모델이 함께 전시되어 있었는데 디자인과 기능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실제 작동 모습을 시연해 주었는데 X-ray 튜브 이동이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어서 이동형 장비도 시연을 통해 확인했는데 외산 장비 못지않은 안정적인 조작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RAYMO는 체험 공간에는 전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가장 작은 본체 사이즈로 타 제품과의 차별점이 있으며, 안전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개발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이동한 곳은 장비 출하장 앞 주차장이었다. 그곳에서 공장 건물을 바라보니 앞으로 DRGEM이 나아갈 방향과 포부가 적혀 있었다. 'WORLD No.1 X-ray Company.' 이 문장을 바라보니 앞으로 DRGEM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기대되며, 세계 곳곳에 KHealthcare를 널리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본다.

통찰의 지도로 그리는 방사선사의 건강 소통



양한준
전 을지대학교 교수



책장 깊숙이 꽂힌 책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 들었다. Simon Garfield의 *On the Map: A Mind-Expanding Exploration of the Way the World Looks*(지도 위의 입문학)에서 시작해 Diane Ackerman의 *A Natural History of the Senses*(감각의 박물관), Bill Bryson의 *A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거의 모든 것의 역사), Fareed Zakaria의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Rebecca Costa의 *The Watchman's Rattle: Thinking Our Way Out of Extinction*(지금, 경계선에서 : 오래된 믿음에 대한 낯선 통찰)까지. 이 책들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나에게 방사선사의 길을 다시 그리는 지도였다. 전문 기술의 화면 너머, 인문 소양이 건강한 소통의 통찰을 여는 순간을 깨닫게 했다.

“선생님, 이 치료가 제 몸을 어떻게 바꾸나요?”라는 질문에, Bryson처럼 “당신의 몸속 작은 우주는 회복의 역사를 이어갑니다”라고 답하라.

이는 기술 설명이 아니라, 환자의 믿음을 치료 동력으로 바꾸는 소통이다

Zakaria의 리버럴 교육은 이 융합의 토대다. 21세기 AI가 영상 판독을 돕는 시대, 직업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교양 소양·인문·과학 융합·이 쓰기·분석·공감 스킬을 길러 혁신을 낳는다. 방사선사는 영상 AI의 출력을 검증하는 “통찰자”여야 한다. 예를 들어, 딥러닝 알고리즘의 오진율을 줄이기 위해 역사적 맥락(환자 연령·유전)을 고려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후배님들, 교양 독서는 전문성을 높인다. Garfield의 지도로 영상 공간을 읽고, Ackerman의 감각으로 환자 신호를 포착하며, Bryson의 시야로 불확실성을 직시하라. 이는 미국 CEO들이 원하는 “유연한 사고력”이자, 방사선사의 “생존 지혜”다.

여기서 Costa의 *The Watchman's Rattle*이 절정의 통찰을 준다. 문명 복잡성 증가가 뇌의 인지 한계를 넘으면 그리드락이 온다. 슈퍼팀·비합리적 대립·침묵·믿음 대체·이 붕괴를 부른다. 방사선 현장은 이미 그리드락 직전이다. 영상 판독 지연, 다학제 갈등, 환자 불신이 쌓인다. 해결은 “insight”다. 좌우뇌 협력의 “아하!” 순간. 마야 붕괴처럼 물 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 SPECT 영상에서 이상 관류 패턴을 볼 때, 선형 분석(ROI 정량화)을 넘어 무의식 연결-이 패턴이 환자의 스트레스 이력과 맞물리나?-을 묻는 통찰이 필요하다. 나는 군사체 네트워크 연구에서 이 통찰을 얻었다. 보이지 않는 군사 연결이 건강을 약화시키듯, 환자 소통의 미세 단절이 치료를 망친다.

통찰의 지도는 이렇게 그려진다. 지도(Garfield)로 방향을, 감각(Ackerman)으로 생생함을, 우주(Bryson)로 겸손을, 교양(Zakaria)으로 유연성을, insight(Costa)로 돌파를 더한다. 방사선사는 이 융합의 전문가다.

지도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Garfield가 말하듯, 지도는 시대의 욕망과 오류를 투영한다. 고대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존 스노의 콜레라 사망 위치 점들처럼, 방사선사는 다양한 모달리티(CT·MRI·PET 등) 영상으로 환자의 몸속 지도를 그린다. 하지만 영상 판독은 끝이 아니다. 노이즈를 제거한 선명한 DICOM 이미지에서 종양의 경계와 림프절 전이를 읽어내는 순간, 우리는 공간적 통찰을 얻는다. 이 지도가 치료 계획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픽셀 배열이 아닌 환자의 삶 여정을 연결해야 한다. 예방의학적 시야로 보자면, 영상은 역학 지도다. 지방간의 밀도 패턴이 생활습관을, 폐결절의 위치가 흡연 이력을 드러낸다. 후배 여러분, 영상 판독 시 ‘이 점이 환자의 어떤 길을 가리키는가?’를 묻는 습관이 전문 지혜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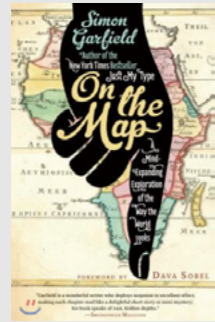
감각은 이 지도를 생생히 만든다. Ackerman의 책은 후각이 기억을, 촉각이 공감을 소환한다고 일깨운다. 방사선실에서 환자의 떨리는 손을 잡을 때, 피부 신경이 전하는 불안은 영상보다 선명한 데이터다. PET-CT에서 FDG 섭취량이 높아 보일 때, 환자의 땀 냄새와 떨림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암시한다. 리니어 가속기 치료 중 환자의 호흡 소리가 불규칙하면, 청각이 호흡 훈련의 필요성을 알려준다. 현대 의료는 화면 중심이지만, 감각 소양이 결여되면 소통은 메마른다. 기술적으로는 SPECT의 회전 영상에서 심근 관류를 정량화하지만, 인문적으로는 환자의 맥박 리듬이 삶의 질을 말한다. 군사체 연구처럼 미세 연결을 보는 눈으로, 환자의 감각 세계를 영상과 융합하라. 이는 단순 공감에 아니라, 치료 정확도를 높이는 전문 기술이다.

Bryson의 우주적 시야는 겸손을 가르친다. 빅뱅 138억 년, 지구 45억 년 속에서 암세포조차 생명의 일부다. 방사선 치료는 DNA 손상을 유도하지만, 그 안에는 세포 복구의 잠재력이 있다. 양자전자 물리학 전공으로 배운 바, 방사선의 양성자 빔은 확률적 상호작용으로 작용한다. 인문 소양은 이 확률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지혜를 준다.

치료실에서 환자가 “통증이 사라질까요?” 물을 때, 영상 데이터와 인문 통찰을 섞어 답하라. “네, 환자분 몸속 지도는 회복의 길을 이미 그려놓았습니다. 함께 가요!” 이는 기술 보고가 아니라, 건강한 소통의 예술이다.

여러분, 책장을 넘기며 소양을 쌓아라. 인문학은 방사선 기술의 렌즈를 더 날카롭게 한다. 그리드락의 방울 소리가 울리기 전에, 통찰의 지도로 미래를 그려보자.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약속하노니, 이 길은 전문직의 진정한 지혜다. 환자의 미소를, 협회의 성장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이끌 것이다.

책 소개



On the Map(지도 위의 인문학)

A Mind-Expanding Exploration of the Way the World Looks A Mind-Expanding Exploration of the Way the World Looks

Garfield, Simon
Avery Publishing Group
2013년 11월 05일



A Natural History of Love(감각의 박물관)

Author of the National Bestseller A Natural History of the Senses Author of the National Bestseller A Natural History of the Senses

Ackerman, Diane
Knopf Doubleday Publishing Group
1995년 02월



A Really Short History of Nearly Everything

Bill Bryson
Penguin Random House Children's UK
2020년 10월 29일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ISSUE

60

"초음파사"란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초음파사"란 명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김건중
제15대,16대 대한방사선사 협회장

초음파 검사를 둘러싼 업무 논의는 오랫동안 혼란이 이어진 분야입니다. 이 틈새에 국내의 여러 직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ARDMS(American 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sonographer" 또는 한글로 직역한 "초음파사"라 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는 제도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국 보건 의료체계에는 '초음파사'라는 직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RDMS 취득자나 초음파 전문방사선사들마저 스스로 '초음파사'라고 부르면서, 법적 직역과 해외 민간 자격이 뒤섞여 이해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보려면 먼저 법적 규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사법에서는 방사선사 업무를 (전략) 의료 영상 진단기 및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 전리비전리 방사선의 취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은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안에 명시되어 있고, 다른 직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장비 조작 가능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특정 기기와 검사 영역을 어떤 직역의 업무로 규정하는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국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

첫째, 국내의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및 관련 의회와의 초음파 검사 업무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방사선사의 검사를 직간접적으로 가로막아 왔습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수행 범위와 의사의 '지도'에 대한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의사의 감독 없이 시행된 초음파검사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이슈가 된 바 있다.
2.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알림(2013. 6. 11.)'에 대한 대한방사선협회 권익보호위원회의 공식 성명(2013. 6. 25.)에서 초음파검사실이 별도 공간에 배치되어 있고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검사를 PACS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사의 지도를 입회 하의 검사로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의 경정을 요구한 바 있다.

출처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 현황과 질 확보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보건행정학회지 2014;24(2):109-119). 이 본문은 아래에 별첨합니다.



둘째, 예전의 초음파 검사가 일부 전문의만의 검사로 인식하였다면 지금은 청진기와 같이 일반적인 검사가 되었으며 검사 수가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틈새에 국내 여러 직역 군이 ARDMS 미국 민간 자격을 받아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민간 자격은 국내법으로는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미국은 보건의료 전공자뿐만 아니라 의료와 무관한 학과 졸업자도 민간 자격을 통해 초음파 업무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이고, 한국은 국가 면허 체계에 따라 해당 직역 전공학과를 졸업해야하는 직역 구분이 엄격한 구조입니다. 직업명이나 독립된 직역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음파 민간 자격 기관과 명칭

미국의 초음파 민간 자격 기관은 다음과 같이 세 기관이 있습니다.

인증기관 체계		
전문 분야	인증 기관	비고 (명칭 표기)
초음파	ARRT	• Sonography, ARRT(S)
	ARDMS	• 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 (RDMS)
	CCI	• Registered Cardiac Sonographer (RCS)

ARDMS : American Registry for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
CCI : Cardiovascular Credentialing International
ARRT : 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예를 들어 ARDMS와 CCI는 학력, 전공 등 다양한 배경의 응시자를 받아들이며, 자격 명칭은 'Sonographer'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ARRT는 응시 자격을 방사선사만으로 제한하고 자격 명칭도 "Sonographer"라 하지 않고 분야 표기인 R.T.(S)(ARRT)로 하는데 (S)는 직군 명칭인 "Sonographer"가 아닌 전문 분야인 "Sonography"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두는 것은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ARRT(미국방사선사인증원)는 분명하게 방사선사의 초음파 분야임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RDMS 국내 취득자들이 “초음파사”라는 직업명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본인의 업무를 해외 기준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료기관 그리고 직역 간 모두에게 혼선된 메시지가 전달되며, 초음파 업무의 법적 규정에 대한 왜곡과 혼선이 계속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더불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인증자들조차 방사선사 면허를 기본으로 한 “초음파 방사선사”가 아닌 “초음파사”로 칭하는 경우가 많아, 직역 정체성과 제도적 취지를 약화시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덧붙여 “초음파사인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는 회원들에게는 근본적 윤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측면과 명칭으로 인한 왜곡

의료법은 의사의 지도 아래 초음파 검사가 수행될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법 해석으로 법률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제기한 검사비 환수 소송에서도 초음파 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무면허자의 검사를 인정하는 해석이 지속되면서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은 주무 관청과 관련 의학회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문제의 핵심은 RDMS라는 미국 민간 자격을 국내 직역으로 오해하거나 국제 면허라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참고로 ‘국제 면허’란 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위법입니다.

RDMS의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소정의 교육을 필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직역 면허시험은 해당 전공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 법령에는 “초음파사”라는 직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의료기사법에도 해당 직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초음파가 방사선사 업무범위에 속하지만 의사의 지도 하에서 라면 특정 직종으로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법부 판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구조 속에서 RDMS 취득자들이 스스로를 sonographer(초음파사로 한역)로 칭하며 임상 검사에 참여

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혼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 1)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직역이 임상에서 직군 명처럼 사용
- 2) 환자·의료기관·행정 및 사법 기관에서 모두 혼동을 발생하고 있으며
- 3) 국내에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외국 민간자격이 직역과 동일시되는 문제와
- 4) 무분별하게 외국 민간자격을 받은 방사선사·간호사·기타 보건인력 간 업무 영역 구분의 모호화가 국내 법규 위반행위를 선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구조 자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로써 이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초음파 전문방사선사의 취지도 흔들림

이 글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사”라는 호칭을 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정리하고, 또 의료 기사법이 규정한 방사선사의 초음파 업무 범위가 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지, 해외 자격이 어떻게 다른 체계에서 움직이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기 위해 시작한 글입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 분야가 법령 상 방사선사 업무 범위이며 전문 분야로 확립하기 위해 오랜 기간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방사선사로서 법적 업무범위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초음파 전문 방사선들조차 스스로를 “초음파사”라고 칭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 초음파 분야가 방사선사의 전문 영역이라는 제도적 입장 희석
- 2) ARDMS 식 구조가 국내에 무비판적으로 유입
- 3) 직역이 아닌 호칭이 직역처럼 굳어질 위험

협회의 제도적 취지와 미래의 회원을 위해서라도 “초음파사”는 머리에서 지우고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또는 “초음파 방사선사”로의 용어 정립은 핵심적인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ARRT와 ARDMS의 초음파 분야 개념 차이

국내 초음파 검사 인력은 주무관청의 모호한 유권 해석으로 오랜 기간 제도적 공백 속에서 다양한 직종이 혼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RDMS(Registered Diagnostic Medical Sonographer)를 국내 학원을 통해 취득한 인력들이 증가해 명칭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초음파사”라는 직역도 없고 국외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RDMS 취득자들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미국 초음파사(sonographer)”라고 하며 검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명칭 사용은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직역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 인력 체계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두 대표 인증기관인 ARRT와 ARDMS가 초음파 분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관은 초음파 분야에 대한 조직적 뿌리와 인증 구조는 확연히 다릅니다.

ARRT에는 “초음파사”란 명칭이 없다.

ARRT는 ‘방사선사’ 기반이기 때문에 “Sonography(초음파)”란 분야 표시만 합니다.

ARRT는 방사선사를 위한 국가급 인증기관이며, 초음파 분

야는 방사선사 체계를 확장한 전문 자격 분야로 공식 표기 는 R.T.(S)(ARRT) 입니다. 즉, ARRT는 초음파 분야를 방사 선기술 분야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독립된 직역을 의미하 지 않습니다.

ARDMS는 자격명칭을 “Sonographer”라 한다.

ARDMS는 출발부터 초음파만의 민간자격기관으로 성장해 왔으며, 초음파 분야를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인식해, 이를 방사선사, 간호사 등 기존 직역과 분리된 형태로 취급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한국에 그대로 수입 될 때, 직역 구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RDMS 방식이 가져올 국내 혼란

RDMS 취득자의 증가가 곧 한국에서 “초음파사”라는 직역 의 등장으로 오해되고 있으며, 이는 직역 체계 전체에 혼선 을 초래합니다.

한국에서는 직역이 법으로 규정되어야만 업무 권한이 생기 며, 자격시험 합격이 곧 직역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점입니다.

ARRT 방식이 한국에 주는 기준

ARRT는 방사선사 면허자가 초음파 전문 분야 자격을 받았 다”는 뜻을 담은 대표 사례입니다.

ARRT는 Sonographer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여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초음파 분야의 새로운 직역이 아닌 방사선사의 전문 영 역으로 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현행 의료법 및 의료 기사법 체계와도 같습니다.

일본의 초음파검사사는?

일본에서는 “초음파검사사” 라 하는데 일본초음파의학회(Japan Society of Ultrasonics in Medicine)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으로, 응시 자격은 일정 기간동안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초음파지도검사사 또는 초음파 전문의의 추천이 있어 야 합니다.

살펴보면 초음파검사사, 초음파지도검사사, 초음파전문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초음파검사사는 일본초음파검사학회(Japanese Society of Sonographer)를 구성해 영문 명칭은 'sonographer' 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음파 전문의 제도가 있는데 이 또한 법적인 전문의가 아닌 민간자격의 전문의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다직종(간호사, 중간호사, 임상검사기사, 진료방사선기 사)기반 자격이지만 이 또한 민간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진료방사선기사법에는 초음파 관련 다음과 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第二十四条之二(画像診断装置を用いた検査等の業務)
磁気共鳴画像診断装置、超音波診断装置 その他の画像
による診断を行うための装置であつて政令で定めるもの
を用いた検査(医師又は歯科医師の指示の下に行うもの
に限る。)を行うこと。

제24조의2(화상진단장치를 이용한 검사등의 업무) 자기공
명화상진단장치, 초음파진단장치 그 외의 화상에 의한 진단
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검사(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는 것에 한정)
를 행한다.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관련 투쟁 기록

2018년4월1일부터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 위 전면 확대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상복부 초음파 검사시 의사만 보험급여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에 당시 대한방사선 사협회(회장 우완희)가 “방사선사에게 면허를 부여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이 보험료를 특정 집단에만 차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마 저 침해하는 것이라고 많은 회원들과 강력한 집회와 관계기 관과 협의를 거치면서 당시 의료계 반응과 협회와 회원 모 두 합심 대응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초음파 전문방사 선사의 지속을 주장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 학술대회

THE 61TH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INTERNATIONAL CONFERENCE

2026. 10.31(토)
인천 송도 컨벤시아





연수원운영계획

구분	교육과정	인원	수강료	교육기간	일수	시간	요일	강의실 (협회회관)	접수기간 (선착순)
3월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24	840,000	03.04~04.27	24	70	월,수,금	연수원2층 강의실	02.09. 10:00~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4	576,000	03.07~03.29	8	48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4월	*상복부초음파실습교육	18	500,000	04.07~04.23	6	18	화,목	연수원2층 강의실	03.09. 10:00~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24	360,000	04.04~04.18	5	30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5월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24	840,000	05.04~07.01	24	70	월,수,금	연수원2층 강의실	04.06. 10:00~
	산부인과초음파전문화교육	24	480,000	05.09~05.30	7	40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심장초음파실습교육	18	500,000	05.12~05.28	6	18	화,목	연수원2층 강의실	
	유방영상전문화교육	30	468,000	05.30~06.14	6	39	토,일	연수원3층 실습외부	
6월	혈관초음파전문화교육	24	576,000	06.06~06.28	8	48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05.04. 10:00~
	품질관리전문인력교육	20	48,000	06.20	1	4	토	전북대학교 병원	
	자기공명영상전문화교육	30	288,000	06.20~06.27	3	24	토,일	연수원3층 강의실	
7월	*상복부초음파실습교육	18	500,000	07.02~07.21	6	18	화,목	연수원2층 강의실	06.08. 10:00~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4	576,000	07.04~07.26	8	48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치료전문화교육	30	216,000	07.04~07.05	2	18	토,일	연수원3층 강의실	
	핵의학전문화교육	20	288,000	07.25~08.01	3	24	토,일	연수원3층 강의실	
8월	근골격초음파전문화교육	24	504,000	08.02~08.23	7	42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07.06. 10:00~
9월	*심장초음파실습교육	18	500,000	09.01~09.17	6	18	화,목	연수원2층 강의실	08.10. 10:00~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24	840,000	09.02~11.04	24	70	월,수,금	연수원2층 강의실	
10월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24	360,000	10.13~11.12	10	30	화,목	연수원2층 강의실	09.07. 10:00~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4	576,000	10.24~11.15	8	48	토,일	연수원2층 강의실	

* 연수원 교육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방연수원(분원)운영계획

구분	교육과정	인원	수강료	교육기간	일수	시간	요일	접수문의 (연락처)
인천광역시회 (분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22	840,000	03.07~04.12	12	70	주말	인천광역시회 032-228-8636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2	576,000	05.09~05.31	8	48	주말	www.irta.or.kr
가야대학교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12	576,000	06.27~07.19	8	48	토,일	평생교육원 055-330-1095
마산대학교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4	576,000	04.25~05.17	8	48	토,일	마산대학교 055-230-1410 010-3833-5186
신구대학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16	840,000	03.22~06.14	12	70	일	평생교육원 031-740-1390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15	576,000	09.20~11.15	8	48	일	
대구보건대학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25	840,000	미정	12	70	주말	053-320-1317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4	576,000	07.11~08.02	8	48	토,일	
춘해보건대학교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20	576,000	03.29~05.24	8	48	주말	평생교육원 052-270-0471~4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20	840,000	06.29~08.24	5	30	주말	
백석문화대학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15	840,000	미정	14	70	목,토	041-550-0732 /2905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15	576,000	10.01~11.05	10	48	목,토	
부산가톨릭대학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20	840,000	03.07~5.17	12	70	토	051-510-0582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20	360,000	08.22~9.19	5	30	토	
전주비전대학교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16	840,000	04.04~05.17	7	70	토,일	063-220-3685
광주보건대학교	심장초음파전문화교육	12	576,000	03.07~03.29	8	48	토,일	평생교육원 062-958-7572
	상복부초음파전문화교육	15	840,000	04.05~5.31	8	70	일	
	유방초음파전문화교육	12	360,000	06.13~6.27	5	30	토,일	
	근골격초음파전문화교육	10	504,000	07.04~07.25	7	42	토,일	

* 연수원 교육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숨 참으세요

틀

33. 방사선사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본 웹툰을 그리는걸 쭈욱 봐 주셨던 친한 지인분이 남겨주셨던 글



일반분들에게 가깝지만 생소한 이 직업에 대해 가진 편견과 오해 그리고 여러가지를 조금이나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웹툰을 그리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에 갈 때 꾸미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편하게 입고 가시는 편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분의 패션은 바로



그 외에 좋아하는 패션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어르신 팬티



지퍼가 내장된 어르신 팬티 방사선사들에게는 저주받은 팬티



높은 확률로 동전도 서비스로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데인저러한 아이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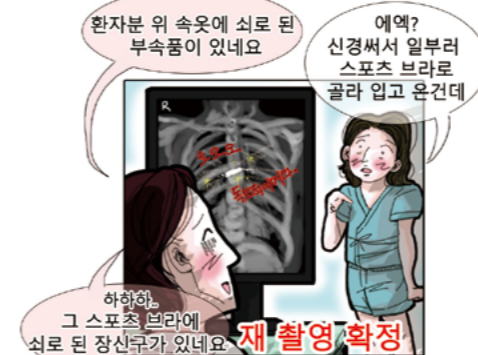
대통령이라도 불가능한 태도 없는 소망

* 주로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착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거동 불가능한 환자일 경우 난감합니다

왜 속옷에 금속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 우리가 속옷을 뒤져볼 수 없어, 환자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촬영하고 나온 결과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재 촬영 하게 됩니다



위 브라지어 탈의의 근본적 원인은 쇠 이거늘. (와이어, 어깨 끈 버클, 뒤 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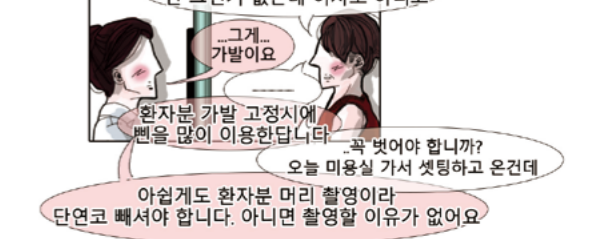
방사선사가 되어 일하고 난 뒤 한 일 중 하나는 모든 속옷 체크



* 모조 진주 같은 비즈류도 일반 촬영시 사진에 나옵니다.



간혹 너무 와이드하게 들어내셔서 속옷에 구멍이 나신 분도 계셨습니다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57&

AUTO POSITIONING SYSTEM GXR-SD

촬영 부위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전자동으로 촬영조건이 세팅되는 최고급 사양을 갖춘 디지털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장비입니다.



검진차량용 Mobile DR Van

3kVA 단상 전원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워크플로우와 빠른 검사 처리 속도를 제공하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MOTORIZED MOBILE SYSTEM TOPAZ

정밀 컬럼과 고성능을 갖춘 컴팩트한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로, 태블릿 기반 Smart Control을 통해 원격 제어 및 실시간 영상·음성 스트리밍, 다국어 음성 가이드를 지원합니다.



퀴즈 이벤트

방사협보 제405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퀴즈 응모 하러가기

응모기간 2026년 3월 24일(화) ~ 4월 28일(화)
참여 대상 연회비 완납 방사선사 회원(* 과년도 회비 완납자)
당첨자 안내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 예정되며, 2026년 5월 15일(금) 이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등 골드바 (2명)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Quiz 1** 대한방사선사협회 제65차 정기총회 재적 대의원 수는 몇 명일까요?
- Quiz 2** 구두 발표(Oral Presentation)는 통상적으로 몇 분 제한된 시간으로 진행 될까요?
- Quiz 3** 제61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일자는 언제일까요?

방사협보 제404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웅입니다. 방사협보가 나오면 관심 있게 읽고 퀴즈이벤트 참여를 하고 있는데 3등 2등에 이어 드디어 1등에 당첨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꾸준함이 답인가 봅니다. 계속 참여하다 보면 다른 모든 회원분들에게도 행운이 찾아갈 수 있으니 방사협보에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며 회원 모두의 건강을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이*웅 회원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균입니다. 자주 또 가끔 응모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주위 동료가 응모해 보라고 추천해 줬는데 이렇게 당첨되어 무척 기쁩니다. 업무 중 연락이 와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다시 확인한 결과 당첨되었다고 해서 저에게도 이런 행운도 찾아오는구나 한편으로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사선사 여러분께 행운과 기쁨을 주시는 대한방사선사 협회가 되길 바라며 모든 방사선사 회원분들의 희망과 기쁨,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균 회원





사단
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2026년 대한방사선사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The 2026 Annual Spring Conference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 International Conference

일시 : 2026년 4월 11일(토)
장소 :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변화와 혁신의 가치로
한걸음 더 도약하는
미래의 방사선사